

|| 칼럼 Column ||

도서관의 발전을 기원하며...



김 홍 만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장
대구중앙도서관장
hm5004@edunavi.kr

인류 역사에 있어서 도서관만큼 오래된 기관도 드물다.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정보공간으로서 인류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문화 발달의 매개체가 되었고 이제는 문명시대 이후 가장 빠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범세계적인 문화경쟁시대의 한가운데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던 도서관은 과거에도 물론 그렇게 운영되어 왔지만 혁신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국민문화생활의 중심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과거 해방과 전쟁을 거치고 피폐된 국민생활 속에서 규모도 작고 수도 적었지만 도서관은 분명 다른 문화관련 기관보다 앞서가는 곳이었다. 지금이야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되는 평생교육강좌, 독서프로그램이란 용어가 생소하던 70-80년대에 도서관인들은 직업에 대한 사명감 하나로 국민문화향상을 위해 헌신하며 국민의 독서생활화와 평생교육만이 선진문화국가 건설에 커다란 용광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숙명처럼 생각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여 그 목표를 향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대구·경북에도 대한민국 도서관 발전에 앞장 선 선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자랑스럽게도 그 산실이 바로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이다.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는 지역단위의 도서관협의회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단체로, 1962년 경북대학교의 제1회 사서실무강습 과정을 수료한 7인의 선구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기칭 '대구시 도서관협회' 조직을 발기하여, 그 해 12월 10일 창립총회에서 그 명칭을 '경상북도 도서관협회'로 정하고 다양한 도서관 활동으로 지역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도서관협의회를 설립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1964년 연구발표회 및 전국학교도서관대회 개최, 1965년 대학도서관대회, 사서교사자격취득강습회, 대구시립도서관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발족, 1966년 관종별 4개 분과협의회 및 기술위원회 조직, 경북 시·군 단위 공공도서관 설치건의, 도서관인의 밤, 전국공공도서관대회 개최 등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도내 학교장·장학사 초청세미나, 사서교

사 세미나, 관종별 순회학술세미나, 도협회지 발간, 도서관 유공자 표창 등 지역도서관인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전국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1982년에는 명칭을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68개의 회원도서관(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을 가진 지역단위의 도서관 단체로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도서관협회 및 회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도서관인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 도서관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적인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2006년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 도서관의 발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도서관계에서 한국도서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내적으로는 2006년 「도서관법」 전면 개정을 기점으로 하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운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서관 발전정책추진은 물론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도서관 협력과 정책추진을 통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의 도서관 활동도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부응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도서관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가 결성되고, 작지만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 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이 개설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학교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조언은 물론 도서 부원과 사서도우미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공동 진행, 연수회 개최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구는 “책 읽는 도시 대구”를 표방하고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에서 학생들의 독서율을 1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직장인이 같은 책을 읽고 상호 교류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3S(Same People, Same Book, Same Mind)”, 영·유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북 스타트”,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 전 시민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는 국가적인 도서관 정책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지역의 활발한 도서관 활동의 중심에서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종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별 지구협의회와의 네트워크 결성, 각종 학술세미나를 통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한층 더 발전된 미래의 도서관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도서관인들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회의 개최, 『도협』지 발간,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런 활발한 도서관 활동들을 관종별, 지역별 협의와 협력을 통해 시·도 전체로 확산시키고 체계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몇 년간 새롭게 개관하는 도서관과 앞으로 개관을 준비하는 도서관들을 회원으로 확보하여 기존 회원 기관들의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빠른 시일 내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09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도서관 발전의 한 획을 긋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가 그 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민